

월요논단



문 종 철
변호사

제주는 예부터 쌀이 귀했다. 토지가 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주도 전 지역에서 논농사가 불가하지는 않았다. 대정현(현 서귀포 서쪽 지역)에서 적게나마 벼농사를 지었고, 정의현(현 서귀포 동쪽 지역)에서 그보다 더욱 적게 지었다. 제주목(현 제주시)에서는 매우 희박하게 논농사를 지었다. 논농사가 되는 땅이 너무 적었기에 제주에서는 논벼보다는 주로 밭벼를 키웠다. 이렇게 해도 벼를 키울 수 있는 땅이 모자랐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고운 밥과 잡곡의 세월

그래서 제주도민의 주식은 잡곡이었다. 보리밥, 조밥, 메밀범벅, 감저뺏데기 등이 그것이다. 쌀밥은 제사상이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렇기에 사투리로 쌀밥을 ‘곤밥’, 고운 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제주도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이모작을 했다. 보통 보리, 조를 번갈아 심었다. 제주도민의 삶에서 보리와 조는 중요한 곡식이었다. 보리쌀로는 밥을 지어먹었다. 만약 보리밥이 쉬었으면 거기에 누룩을 섞어 발효해 신다리를 만들어 먹었다. 감주(식혜) 또한 제주는 보리나 조로 만들어 먹었다. 좁쌀로는 밥도 지어먹지만 가루를 내 떡을 해 먹었다. 오메기떡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오메기떡에 누룩을 넣어 술을 빚기도 했다. 만든 술을 고소리(소줏고리)에 내리면 소주

가 나오는데 이를 고소리주라고 한다. 제주에서는 좁쌀로 ‘강술’이라고 하는 고체 술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물에 개어 마셨다. 이렇듯 제주에서는 술을 빚을 때 조를 사용했다. 이렇게 빚은 술마저 귀하게 여겨 잔치나 제사상에 올릴 정도였다. 조는 농사짓기 힘든 곡물이다. 물론 농사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마는 보리농사에 비해 조 농사는 더욱 힘들다. 보리는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 봄에 수확하지만 조는 여름에 재배하기 때문이다. 조 파종을 6월에 하는데 파종하고 나서 크게 비가 오면 ‘검집(길)’만 무럭무럭 자라 농사가 망한다. 파종할 때에도 마소를 이용해 땅을 다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해 씨앗이 발아하기 힘들다. 파종을 잘 끝마쳤다면 제일 힘든 일이 기다린다. 바로 감매기다. 감

은 통상 4번 정도 매는데 대개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맨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감을 한여름에 매기 때문에 조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라면 오래 더워서 감매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입 모아 말한다. 이렇게 조와 보리는 제주도민들의 주식이자 가난의 상징이었던 주곡이었으나 현대에는 위상이 사뭇 달라졌다. 재배하기 어려워 귀하게 여겼던 쌀은 흔해져서 도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같은 무게 대비 잡곡값이 비싸져서 먹기 곤란해졌다. 되레 잡곡은 건강식품으로 선호받는 시대가 됐다. 아마 사오십 년 전으로 돌아가 미래에는 잡곡이 귀해지고 쌀이 흔해진다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나 정도가 가능하기 힘들 지경이다.

열린마당

청년 공공근로 관리를 하며



고 경 아
제주보훈청 보상과

청년 공공근로 참여자를 새로 채용했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다. 어떤 분이 청년 공공근로 참여자로 채용될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내가 인복이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 십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들었지만 참여자는 1명밖에 선정될 수 없어 아쉬움도 있었다. 좋은 인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요즘 사회에서도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청년 공공근로 참여자가 제주보훈청에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과 약제비 업무 보조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맑은 일을 묵묵히 해주는 고마운 친구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다시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분도 환영이다. 지난번 청년 공공근로 참여자도 참 성실한 분이였다. 이번 참여자 역시 아직은 서툴지만 점점 전문인력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인복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청년은 꿈을 꾸고 노력한다. 그렇기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청년 공공근로 참여자가 다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곳, 제주보훈청 보상과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금악마을 축산악취 해결 위해 ‘한뿔’

민·관 협력 악취 저감 추진

○…제주자치도가 지역주민과 양돈농가,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금악마을 축산악취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 주목. 제주도는 지난 4월 금악리 마을회관에서 민·관 거버넌스 간담회를 열고 악취 취약시기 가축 분뇨 처리량 확대, 농가의 자발적 악취 저감 참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할 계획. 제주도는 금악지역에서 악취 측정값과 민원 발생 추이, 농가 관리 수준,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신속 수거·처리 모델을 제주 전역의 축산악취 취약지역으로 확대할 방침. 오소범기자

예래동 생활밀착형 숲 조성

○…서귀포시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방문객이 일상 공간에서의 자연 체감은 물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청사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목표로 예래동주민센터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본격화. 이에 식물로 창가를 채우는 ‘블라인드 플랜트’를 도입하고 수직·수평 정원 13개소와 옥상 정원 1개소 등 총면적 240㎡에 공기정화기능이 뛰어난 호아, 산호수, 도깨비고사리 등 4000여 본을 심어 녹색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 시 관계자는 “10월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예래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숲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백균탁기자

사설

‘민생경제상황실’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이 뒷북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실이 활용하는 통계자료가 1~2개월 전의 데이터여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는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위성곤 지사는 취임 후 제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상황실을 가동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 소상공인 매출 등의 자료는 지난 4월 말 통계다. 한참 지난 통계를 갖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미래경제

산업위원회 강명균 의원은 제주도 경제활력육 업무보고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재 구축 중인 실시간 상황판이 과거의 경제동향을 사후에 짚어보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달 전 경제지표를 보고 대응한다는 것은 실물경제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실의 성패는 화려한 대시보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들이 고통을 느끼기 전에 신속히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일갈했다. 실물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필수다.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매달 발표되는 데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종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실 실속부터 챙겨야 한다.

렌터카 할인율 제한, 요금 안정 기대한다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을 1일 대여요금의 최대 60%로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이달 15일 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커지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제주관광의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의 소비자 부담금은 모두 5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렌터카 업체는 높은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80~90%

에 달하는 할인 경쟁을 벌여 왔다. 반면 성수기에는 신고요금 그대로 적용해 렌터카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할인을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성수기와 비수기 간 과도한 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업체들이 비수기 고객을 유치하려고 신고요금 자체를 낮출 경우 ‘하루 1만원 렌터카’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반대로 성수기 등 수요가 몰릴 때는 신고요금을 높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그치지 말고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나 출혈 할인 경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제도가 제주관광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와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향교훈장 윤천) 김해김공 재현(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음이 도리어오나 경황이 없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7월 20일

배우자 진원방(목자)

아들 김창보 며느리 좌여정

창우 현연자

딸 김숙희 사위 김순지

미성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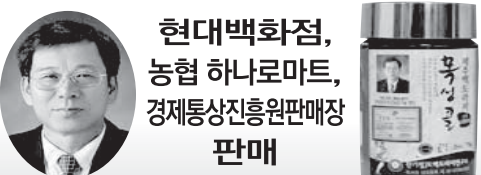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aji.com

주산지 선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